

사회

장애학생 가족 “방학은 괴로워”

계절학교 입학 ‘바늘구멍’... 시교육청 지원 시늉만

광주 초중고 2천여명... 학부모들 생업 중단하고 돌봐

초등학교 6학년인 지적장애 2급 아들(13)을 둔 학부모 A씨(여·41·광주시 광산구)에게 방학은 괴롭다. 전신 마비로 수년째 병원에 입원중인 남편의 병간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는 방학이면 아들마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된다. A씨의 아들이 비장애학생이라면 각 학교의 무료 계절학교나 학원 등에 보내면 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받아줄 교육기관을 찾아 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A씨는 이번 겨울방학에는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집중관리’계절학교에 아들을 맡길 수 있게 됐지만, 벌써부터 올 여름방학이 걱정이다. 정원이 21명인 집중관리 겨울방학 계절학교에 60명이 넘는 장애학생이 풀려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A씨는 “방학만 되면 하루종일 직장 병원, 집을 오가면서 남편과 아들을 돌보고, 생활비까지 벌어야 한다”면서 “방학하는 것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울먹였다.

겨울방학을 맞은 광주지역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장애학생 복지 대책은 매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은 2천여명(초 572명, 중 302명, 고 216명, 특수학교 916명)에 이른다. 이들이 방학중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부모연대 7곳과 장애인복지관 3곳 등 10곳 뿐이며, 수용 인원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애인부모연대 집의 경우 만 12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복지관은 월 15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시설 기관이 있지만 월 수업료만 25만~5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학생 가정엔 부담하기엔 버거운 돈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장애학생 방학 지원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

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와 동·서부 교육청에 장애인 계절학교를 운영 중이지만, 수용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시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부터 장애학생의 방학 중 복지증진을 위해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계절학교를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겨우 100명 정도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가 직접 나서 오는 29일까지 광산구 어등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대전 등 타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중 계절학교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박찬동 실장은 “시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장애인 학생 복지 대책을 보면 화가 날 정도”라면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장애학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개선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문계고 4곳 특성화고 전환

전국단위 모집 가능

광주자연과학고 등 광주지역 전문계고 4곳이 특성화 고교로 전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고(금형, 광자동화, 건설), 광주전자공고(가전, 자동차), 금과공고(군 특기병) 등을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전문계고 13곳 중 특성화고는 기존 전남공고(철단설비), 광주여성(회계), 전남여상(디자인, 보건) 등 3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광주동일정보고와 광주전산고, 송원여상 등도 특성화고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전환 방침에 따라 나머지 서진여고와 송고 등 보통과(일반계)를 복합 운

영중인 사립학교 2곳은 법인 측에 전문계고 일반계 중 어느 쪽으로 전환할 지를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하며 교장 및 교사 초빙제 확대, 교과편성 자율성 확대 등이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 사실상 전문계고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시설환경 투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취업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철 광주시교육청 과학기술정보화과장은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경찰청 차장 정순도·전남경찰청 차장 나옥주씨

경무관급 31명 인사

정부는 6일 광주경찰청 차장에 화순 출신의 정순도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급 31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북 남원 출신의 나옥주 광주경찰청 차장은 전남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정 차장은 동신고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보성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거쳐 이날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나 차장은 환일고과 경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해 순창경찰서장과 안양경찰서장,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인천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인사에서 담양 출신의 전석중 경찰청 정보4과장을 경



정순도 차장 나옥주 차장

찰청 경무과로 승진 전보하는 등 14명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전과장은 광주일고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별로는 경남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과 강원, 충남, 충북이 각 2명, 대구와 서울, 전북이 각 1명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초부터 총경 이하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추위 절정 (Cold peak)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Daily weather forecast table)

올 성취도평가 7월13~14일 시행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오는 7월13~1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란 초·중·고교생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이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교과의 경우 1학년이 대상이었으나 평가시기가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고 2학년으로 평가 학년을 변경했다. 고 1학년으로 하면 7월에 시험을 치르기에 학습 내용이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교의 평가시간을 기존 과목당 7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고 교과는 평가과목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은 종전대로 5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연합뉴스

간접흡연 폐암, 치료제도 안들어
세브란스병원 분석, 저명 국제학술지에 실려
간접흡연에 오래 노출된 폐암환자는 요즘 주로 처방되는 폐암치료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김주환·조병철 교수팀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비흡연자이면서 폐암에 걸린 환자 179명의 간접흡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
객실료 110,000 (초저가)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신양파크호텔 2010.2.28까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8 / 02-22-0108